지상중계

중앙종회 '진흥원특위'
종단과 관계정립 토론

지난 1월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계종과 진흥원 및 불교방송의 관계정립을 위한 토론회'.

조계종 중앙종회 대한불교진흥원제자리찾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연스님)는 지난 1월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회식에서 중앙종회 수석부의장 지준스님은 "진흥원은 설립 당시 목적대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토론회가 종단과 진흥원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인사말을 했다. 〈지상중계 원본은 본지 홈페이지 참조〉

"진흥원, 종단과 협력·지원관계 복원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진흥원이 설립 당시 취지를 인식하여 종단과 협력·지원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토론회에서는 의연스님이 △조계종과 진흥원의 관계 해석과 불교계 기여 방안 △조계종·진흥원·불교방송의 상호 기대 역할과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발제를 했으며, 박준영 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박원식 불교방송 보도국장, 허남오 10·27법난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 김영일 조계종 총무원 기획차장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 내용을 요약했다.

발제 / 의연스님 '조계종과 진흥원 관계 해석과 불교계 기여 방안' 〈요약〉

여러 자료를 볼 때 대원 장경호 거사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산 출연자이며, 실제적인 설립자는 박정희 대통령이다. 총무원장 재임 중 진흥원 이사를 역임한 의현스님도 진흥원이 '정부출연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증언했다. 1980년11월21일 사임한 황산덕 이사에 대해 진흥원 이사회가 해임과 취임의 의결도, 해임과 취임의 인가 신청도 하지 않았음에도 문화공보부가 해임과 취임을 승인했다.

진흥원은 10 · 27 법난 직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10 · 27법난과 불교계 수사를 총괄 지휘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자문회의(진흥원 회의록에는 '불교정화기획자문회의'로 기재)에 2500만원을 지원했다.

진흥원은 종교단체임이 명백하다. 진흥원이 1975년 8월14일 문화공보부에 발송한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문건의 첨부자료인 '재단운영사업계획'을 보면 △불교 조계종 총무원 운영보조 △사찰보수 및 환경정화 지원이 들어있다. 또한 '불교계 숙원 사업'으로 △불교연구원 설립 △불교 통일교전 간행 △불교병원 설립 △불교회관 건립 △불교방송국 설립이 제시되어 있다.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삼보정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신심으로 활동했다. 무엇보다 사실 확인에 주력했다. 사실에 대한 판단과 판단의 쓰임새는 사부대중의 몫이다. 장경호 거사의 발원인 불교중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부대중 모두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

• 박준영(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대한불교진흥원도 총무원도 불교방송도 사찰도 사물(私物)이 아니고 공물(公物)이다. 초심으로 돌아가면 해결 안 될 것이 없다. 부처님 하신 일 가운데 전법(傳法)이 가장 중요했다는 사실을 알면, 지금의 불교계가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하다. 21세기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불교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대원 장경호 거사께서 거금을 쾌척했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미디어와 인재 양성 불사에 집중하면 불교계가 앞으로 달라질 것이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도, 초심으로 돌아가면 정답이 있다.

• 박원식(불교방송 보도국장)

대한불교진흥원의 제자리 찾기의 우선 과제는 불교방송과의 관계정립이다. 종회에서 토론회에 참석해달라는 공문 접수 후 전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논의했다. 종단과 함께 불교방송 개국에 참여한 진흥원이 어느 순간 불교방송에 대해 채권자로 돌변했다. 불교방송 직원들도 진흥원과 소통하고 화합하고 싶다. 조계종과 진흥원이 합심해 불교방송을 설립한 것처럼, 다시 한 번 종단과 진흥원이 관계를 정립한다면, 불교방송 위상도 달라질 수 있다. 진흥원이 불교방송의 모태임에도 태도가 바뀐 것은 일부 이사의 전횡 때문이다. 진흥원이 불교방송을 만들고 지원해준 정신으로 돌아가 달라.

• 허남오(10·27법난명예회복심의위 위원)

대한불교진흥원으로 인한 피해가 조계종이 크다. 진흥원이 참석해 토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토론회가) 희석됐다. 진흥원은 10·27법난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앞으로 조계종에서 조치해야겠지만, 10·27법난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도 한 번 짚을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10·27위원회는 불교 전체의 명예회복 기능을 위해 역사기념관을 건축할 예정이다. 진흥원 문제도 역사기념관에 전시되고 명시되도록 하겠다. 조계종에서도 법적 문제와, 전시 이후의 문제를 고민했으면 한다.

• 김영일(조계종 기획실 기획차장)

대한불교진흥원의 설립 취지나 목적은 종단지원에 있다. 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종단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종단은 조계종이다. 이러한 설립 취지와 목적을 지닌 진흥원이 10·27 법난과 신군부에 의해 왜곡됐다. 종단과 스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진흥원의 운영과 구조에 왜곡된 영향을 끼쳤다. 앞으로 진흥원 정관을 개정해 종단 인사가 이사로 참여하는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종단과 진흥원의 관계가 재설정되어 불교계의 총체적 역량으로 결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론회를 계기로 다양한 논의와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엄혹한 종교 환경 속에서 서로 연계·연대하는 바탕이 되길 바란다.

• 자유토론 (요약)

박원식=향후 중앙종회 차원의 로드맵은 무엇인가?

의연스님=결론이 앞서 가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다. 종단에서 추천하는 이사를 받고, 신도 대표를 이사로 받으면 된다. 차제에 진흥원 기존 이사들은 용퇴해야 한다. 불교중흥이라는 대원거사의 유지를 받들어 초심으로 돌아가면 도전에 직면한 한국불교의 중흥불사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3월 종회에 (활동결과를) 보고할 것이다.

선문스님=진흥원 일부 이사에 의해 진흥원과 불교방송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인가.

박원식=가장 유능한 선장이 와야 되는데, 특정 이사가 지속적으로 불교방송에 개입하려는 이유 때문에 불교방송과 진흥원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동출스님(설법연구원 원장)=정관 개정을 통해 조계종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이사로 참여하려면 그동안 불교방송 이사들이 제 기능과 제 역할을 했는지도 살펴야 한다. 불교방송의 지난 20년을 본 종도의 한사람으로서 직원들의 복지가 후퇴했다. 그것이 진흥원에 일정 책임이 있지만, 구성원과 이사들의 책임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문제를 종단과 원만하게 풀어야 한다. 대화를 하자면서 인격적인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

선문스님 = 대한불교진흥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했으면 대화할 차원에서 잘 진행됐을 텐데, 아쉽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하도록 하겠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어린이청소년포교 성과 총망라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발간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청소년포교 집중 3개년 계획의 회향을 기념해 그간의 사업과 활동을 정리한 총람이 발간됐다. 조계종 포교원은 어린이청소년포교 총람 〈어린이청소년포교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제작보고회를 지난 1월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고 총람의 내용과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어린이청소년포교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은 1922년 강릉포교당 관음사내 금천유치원 설립 이래 80여년간 전개된 어린이청소년포교의 역사와 현황을 포교단체 법회 찬불가 미디어 등 분야별로 정리한 결과물이다. 특히 2006년 12월 종단 최초로 포교원 내에 어린이청소년팀을 신설한 이후 펼쳐진 집중 3개년 사업의 부문별 성과와 과제도 수록됐다. 아울러 유관단체의 활동을 비롯해 교구·교재 등의 현황파악, 어린이청소년포교에 대한 기초정보도 담아 포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포교원장 혜총스님은 발간사에서 "올해는 포교원이 시행한 집중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 지도자 양성과 어린이청소년 법회 개설 및 중심도량 지정, 다양한 교구 교재 개발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며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더욱 새로운 어린이청소년포교의 역사가 씌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지난 1월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에게 구호기금을 전달한 고운사 주지 호성스님,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스님, 봉선사 주지 인묵스님, 대전비구니청림회장 효경스님, 안직수 한국불교기자협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社告 지진참사 아이티에 자비의 손길을!

– 성금모금 명단 (무순)

△월정사(1000만원)△해인사(1000만원)△봉선사(1181만원)△고운사(1000만원)△백련문화재단(1000만원)△강화사암연합회(1000만원)△불국사(100만원)△의왕 백운사(100만원)△죽림정사(10만원)△부산 일심회(30만원)△아림사(10만원)△총무원 국장단스님(100만원)△고흥 수도암(5만원)△창녕 안양사(16만5000원)△경주문수회(100만5만원)△평안사(10만원)△안성 기원정사(100만원)△장곡사(20만원)△현불사(30만원)△낙산사(300만원)△여의도포교원(31만원)△불광사(500만원)△한국불교기자협회(100만원)△비구니회청림회(539만6000원)△통도사승가대학(333만360원)△보리암(100만원)△명법사복지(500만원)△정명사(20만원)△광법사(10만원)△영혜사(10만원)△송현주(3만원)△김일권(1만원)△화영스님(10만원)△권애경(10만원)△안영희(1만원)△오창원(2만5000원)△김선자(100만5만원)△박부선(5만6400원)△최경숙(10만원)△최정경(5만원)△정영희(10만원)△최영미(3만원)△자현스님(20만원)△김영자(100만원)△이용관(10만원)△한승자(15만원)△김명숙(10만원)△최난희(30만원)△김진호(10만원)△신귀향(2만원)△이상규(5만원)△백점님(1만원)△전현숙(3만원)△박용숙(1만원)△소진해(10만원)△이금희(3만원)△박현자(30만원)△무명(5만원)△유연숙(1만원)△변승옥(10만원)△양재혁(1만원)△대한불교조계(10만원)△조아름(5만원)△정상률(100만원)△신상철(1만원)△김혜경(5만원)△김강순(5만원)△천세영(20만원)△박순례(11만원)△김명자(5만원)△엉이(1만원)△최순애(2만원)△김춘언(2만원)△류영주(5만원)△희망을(1만2000원)△이진선(10만원)△이윤재(5만원)△김선희(2만원)△분당야탑이영(5만원)△김명헌(3만원)△오선희(3만원)△이철순(5만원)△아이티강문구(10만원)△최무경(5만원)△조동옥(5만원)

총 9920만4760원
(1월25일~1월28일 정오 현재)
누적액 2억6107만7130원

• 자비나눔 계좌 : 농협 301-0029-6115-71 (예금주: 아름다운동행)
농협 053-01-247901 (예금주: 불교신문사)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불교신문
• 문 의 : 아름다운동행(737-9595)
불교신문사(730-4488)

중앙승가대학교 2010학년도 신(편)입생 추가모집

〈추가모집〉 신입생 모집요강

본교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법 제67조에 의해 종단에서 운영하는 종립대학으로서 대한불교조계종 「기본교육기관」입니다.

■ 모집학과 및 정원

계 열	학 과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재외국민등)	비 고
인 문	불 교 학 과	00명	0	
	역 경 학 과	00명		
사 회	포교사회학과	00명		
	사회복지학과	00명		
합 계(명)		00명	0	00명

※수시모집 합격자(본교포함) 및 정시모집 타 대학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 일반전형

◇ 지원자격

⦿ 조계종 승려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 전형방법

· 입학정원의 100%를 다음의 방법으로 선발함

고교내신성적	면접(인성)고사	합 계
40%(400점)	60% (600점)	100%(1,000점)

⦿ 고교내신성적은 고등학교(검정고시 포함)성적 중 학인이 지정한 우수과목 4과목만 평가함.

■ 원서교부 및 접수

◇ 장 소 : 본교 교학처(본관 1층)
◇ 교부기간 : 2010. 2. 20(토) ~ 2010. 2. 22(월)
◇ 접수기간 : 2010. 2. 20(토) ~ 2010. 2. 22(월) 16:00까지
※우편접수는 원서마감(16:00)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1)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2) 고교졸업 (예정) 증명서 1부
 • 대입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 사본과 성적증명서 각 1부
3) 고교생활 기록부 사본 1부 (2010년 졸업예정자포함)
4) 승적증명서 1부
5) 수계증명서 1부
6) 주민등록 등본 1부
7) 사진(종단 의제규정에 따른 의제를 수한 반명함판 3×4㎝) 5매 제출 (2매 원서/ 3매 별도)
 • 사미(니)스님은 의제규정 준수 제출 요망
※타 종단은 정시모집에 충원이 되어서 모집 하지 않음.

■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1) 원서대 : 3,000원
2) 전형료 : 60,000원

■ 전형일정

◇ 예 비 소 집 : 2010. 2. 23(화) 10:00
◇ 면접 및 인성검사 : 2010. 2. 23(화) 10:20
◇ 합 격 자 발 표 : 2010. 2. 23(화) 14:00
◇ 등 록 : 2010. 2. 24(수) 1일간
※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소집, 면접을 하루에 마칩니다.

■ 기 타

⦿ 신입생은 전원 수행관 입방 생활을 하여야 함.

편입생 모집요강

■ 모집학과 및 인원

계열구분	학년	학점코드	학 과	모집인원
인문 · 사회계열	3학년 (일반편입)	13	불 교 학 과	0명
		23	역 경 학 과	0명
		33	포교사회학과	0명
	3학년 (학사편입)	14	전학과	0명

■ 지원자격

⦿ 일반편입 : 2010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비구·비구니 승려로서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 및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나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 학사편입 : 2010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비구, 비구니 승려로서 4년제 대학졸업(예정)자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 타 종단은 정시모집에 충원이 되어서 모집 하지 않음.

■ 전형방법 및 일정

신입학 전형일정과 같으며 서류(전적대학 성적) 및 면접전형으로 선발

■ 기 타

⦿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중 사미(니)는 편입학을 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처(입시담당자)로 문의하시거나 학교 홈페이지(www.sangha.ac.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중앙승가대학교
415-070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031) 980-7713~5